

10월4일(월)/로마서12:3~13 (2)

제목: 은사는 키우고 개발해야 합니다.

은사의 종류는 많다.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성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다(6~8절). 예언자는 설교자를 (6절), 섬기는 자는 교회 봉사자를 (7절), 가르치는 자는 기독교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를 가르킨다(7절). 그밖에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자, 재산으로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자. 장로나 권사 같은 높은 직분을 가진 자,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다(8절). 이 은사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3절) 각 사람에게 주셨다. ‘분량대로’ 주셨음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하라는 뜻에서 이다. 은사는 썩히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우물의 물을 자주 퍼서 길어내면 점점 좋은 물이 나오지만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못쓰게 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용하고 응용해서 키우고 개발해야 한다.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사람은 은사를 개발하고 키워야 한다. 은사를 사용하여 키우지 않고 썩히는 것은 은사를 주신 분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10월5일(화)/로마서12:3~13 (3)

제목: 사랑은 성실합니다.

마울은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생활 표본에 대해서 일러준다. 구원 받은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며, 어려운 성도를 구제하고 대접하는 일을 해야 한다(9~13절). 이 목록들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는 아주 쉽고 간단 명료한 말씀들이다. 이 목록의 핵심은 ‘사랑’ 이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사랑에는 ‘거짓’ 이 없다는 점이다(9절). 거짓이 없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이다. 사랑의 속성은 성실이다. 성실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말한다. 오늘 사랑하고 내일 사랑안하면 그것은 성실이 아니다. 성실의 특성은 시간적 지속성에 있다. 사랑은 꾸준한 것이다. 변덕이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변덕적 사랑은 욕정에 불과하다.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 성실이다. 세상이 변하고, 대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사랑’ 이다.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해서 성실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갈수록 깊어진다.

10월6일(수)/로마서12:14~21

제목: 가장 확실한 원수 보복법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생활 지침들이 제시된다. 크리스찬은 자기를 꺾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픔 당한 자와 함께 울고, 타인을 존중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며,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며, 원수를 더 선대하며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다(14~21절). 여기서 새겨들어야 할 말씀은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0절)는 말씀이다. 옛날에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 형벌은 범죄자에게 머리카락이 전부 타 들어가는 고통을 주며 심리적으로 큰 수치를 주는 형벌이었다. 원수가 주리고 목마를 때 음식과 물을 갖다 주는 행위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원수 보복법이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저 사람은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까?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 한다. 원수를 이기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겨야 하는가? 선으로 이기라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과 맞붙지 말고, 자랑하는 자 앞에서 같이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한다. 크리스찬은 겸손으로 교만을, 정결함으로 부정을, 정직함으로 거짓을 이기는 자이다.

10월7일(목)/로마서13:1~17

제목: 크리스찬의 정치관

크리스찬은 모든 정치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1절). 물론 좋은 지도자라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도자에게까지도 순종해야 한다(1절). 성경은 악한 지도자에게까지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심하게 말한다(2절). 베드로전서2장18절에서는 불의하며 까다로운 지도자에게도 순종하라고 가르친다. 그 이유는 그 그릇된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다(1절). 그릇된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필요악으로 세웠기 때문이다(4절). 하나님은 그러한 그릇된 지도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세웠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혹 잘못된 지도자가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6~7절). 자연과학의 세계를 보면 질서 정연하다. 태양계와 은하계가 자연의 질서와 원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언제 어느 때 위성이 충돌할지 모른다. 그러나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우주계는 사고가 없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질서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자연계 뿐 아니라 인간계에도 질서를 주셨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10월8일(금)/로마서13:8~10

제목: 사랑 하나만 잘 합니다.

크리스찬은 사랑의 빛만 켜야 한다(8절). 다른 빛은 지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인생은 일종의 부채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부모와 조국과 그 밖의 고마운 사람들로 부터 항상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산다. 이 모든 것이 빛이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이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면 율법의 수백 가지 요구를 충족하게 된다(10절).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율법이 사람에게 “~을 해라” 혹은 “~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요구 조건을 자동적으로 이루며 살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간음 할까?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 쾌락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왜 살인을 할까? 증오와 미움 때문이다. 사랑하면 오히려 자신을 희생한다. 도둑질하는 이유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줄려고 하지 훔쳐갈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랑’을 충실히 잘 하면 간음도, 살인도, 도둑질도 그 밖에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게 된다(9절).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으려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오직 ‘사랑’ 하나만을 충실히 잘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